

들꽃편지 668

2024.9.22. 추분
<https://cyw.pe.kr>

비겁한 선지자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비겁한 선지자입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겁나서 요나처럼 도망 다니는 겁쟁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세 종류인데 ①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다가 맞아 죽은 선지자 ②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듣기 좋게 각색하여 대중 전하거나 도망 다니는 선지자 ③스스로 된 가짜 선지자. 이 중에 저는 ②번째 선지자입니다.



제가 신학공부를 하던 때, 자주 학우들과 '삼각산기도원'에 올라갔고, 개인

적으로는 안양 석수동에 있는 '갈멜산기도원'에 자주 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슨 소명을 받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까? 하고 기도할 때,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너는 성향상 목사를 하면 수많은 성도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목회자’가 되지 말고 이 시대에 문서를 통해 나의 ‘진의(眞意)’를 전하는 ‘선지자’가 되어라.” 바람결에 들었는지, 꿈속에서 들었는지...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한눈팔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진의’인 순수, 순혈 복음을 문서(글)로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물불을 안 가리고 글을 썼습니다. 어느 해 인가는 뽕(fill)을 받았는지 신문, 방송에 1년 동안 원고를 1천편이나 마구마구 썼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단 감별사 이런 사람들에게 한번 걸리면 변명도 못하고 그냥 깎 죽겠더라고요. 그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①번에서 ②번으로 넘어가 몸을 사리게 된 것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옛날처럼 무조건 죽이는 시대는 지나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할 말 다 못하는 ②번 비겁한 선지자입니다.

♥할 말 다 못하는 비겁한 선지자 최용우 올립니다.

예수



교회가 가르치는 예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을 전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쪼개고 분석한다.
(Jay Kim 장로)

감정과 몸

범인(凡人)은
자기 몸을 자기 뜻대로 부리지 못한다.
예컨대 자기 뜻대로 감정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감정의 부림을 당한다.

성인은 자기 감정을
자기 의지에 따라 자유자재로 부린다.
그래서 화를 낼 때는 화를 내고
기뻐할 때는 기뻐하는데
그렇게 하여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

반대로 범인은 화를 내든 기뻐하든
자기 감정에 휘둘림으로써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다치게 한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59 저는 뭐가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중 오후에 한 청년이 이제야 생각나서 왔다고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저녁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면서 조그만 박스를 돌담 위에 놓고 그냥 왔다고 누가 가져갔는지 CCTV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내용물을 물으니

“좀 비싼 강아지 장식 목걸이예요.”

CCTV를 확인 전에 어제 근무하였던 경비원에게 전화하여 물어보니 당연히 버리는 것으로 알고 개봉하여 빈 박스는 종이 모음함에 그리고 내용물은 재활용품 처리함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군청 재활용품 수거차가 다녀간 뒤라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 근무자는 쓰레기장 분리수거를 담당하고 있기에 충실히 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전임 근무자가 청년에게 전화로 미안하다고 하니 배상하여 달라고 하여 변상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잘못은 자가 해 놓고 변상하래?”

“우리 경비원은 시키는 대로 일할 뿐인데...”

“내가 그 청년 만나 한마디 해 줘야겠네. 관리소장님은 뭐 하는 거야?”

혼자 중얼거리고 있으니 전임 경비원이 말합니다.

“그러지 마쇼. 우리 경비원이 무슨 힘이 있나요? 그저 하라는 대로 하고 끝까지 겸손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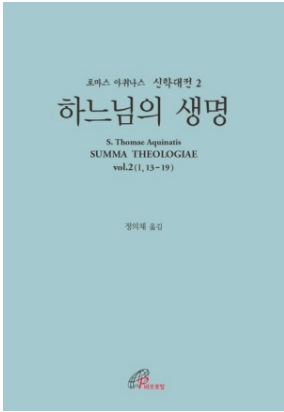
“주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일을 위하여 이렇게 겸손하고 낮추고 기꺼이 손해 보는데 저는 도대체 뭐가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셧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셔유?’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거, 괜찮은 것 같네요.

하나님의 생명



토마스 아퀴나스<신학대전>1부 제2권 (13-19)
 S.T Aquinatis 지음/정의채 옮김
 572쪽 35,000원 바오로딸 1993.

- 13.하나님의 명칭에 대하여
- 14.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
- 15.이데아에 대하여
- 16.진리에 대하여
- 17.허위에 대하여
- 18.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 19.하나님의 의지에 대하여

13.하나님의 명칭에 대하여

- ①하나님께 적합한 어떤 명칭도 전혀 없다. 하나님은 질(質)이나 모든 우유(偶有)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다.
- ②하나님께 대해 실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명칭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다. 피조물들에게 표현되는 만큼만 딱 그만큼만 하나님의 본질을 말할 수 있다.
- ③하나님께 대한 어떤 명칭도 고유하게 말해지지 않는다. 모든 명칭은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다. 예컨대 '독수리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것은 비유적 명칭이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고유의 명칭은 아니다.
- ④하나님께 대해 말해지는 명칭들은 동의어이다. 동의어는 같은 것을 표시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성(善性)은 그의 본질이다. 지혜도 비슷하다. 그러므로 그런 명칭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의어이다.
- ⑤하나님께 대해서와 피조물에 대해서 말해지는 것(명칭)들은 일의적(一義的)으로 그들(하나님과 피조물)에 대해 말해진다.
- ⑥명칭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보다는 피조물에 대해 더 먼저 말해진다. 명칭이란 인식된 것들의 기호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을 더 먼저 인식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름 짓는 명칭들은 하나님보다 더 먼저 말해진다.
- ⑦피조물과 관련을 갖는 명칭들은 하나님께 대해 시간적으로 말해지지 않는다. 신적 실체는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명칭들이 하나님께 대해 말해지는 것은 시간

적으로가 아니라 영원에서 말해지는 것이다.

⑧하나님이란 명칭은 본성에 대한 명칭이 아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명칭되는 것은 인식되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인식되지 않는다. 고로 명칭 되지도 않는다.

⑨‘하나님’이라는 명칭은 공통적(共通的)인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보통명사이고 고유명사가 아니다. 하나님 자신은 보편적인 것도 특수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신적 본성’을 표시하기 위해 부여된 것이다.

⑩‘하나님’이라는 명칭은 분유(分有)의 하나님과, 본성의 하나님과, 역견(臆見)의 하나님께 일의적(一義的, 동명동의적(同名同義的))으로 말해진다.

⑪‘있는 자(者)’라는 명칭이 하나님의 가장 고유한 명칭은 아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해서가 아니면 알려지지 않는다. 그런데 ‘있는 자’라는 명칭은 피조물과 어떠한 관계도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고유한 명칭일 수 없다.

⑫긍정적 명제들(肯定 命題)은 하나님께 대해 형성될 수 없다.

14.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

①하나님 안에는 지식이 없다. 모든 지식은 보편적이거나 특수적이거나 개별적인 것이며 어떤 결론에 관계된 원인이 되는 어떤 인식이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원인이 되는 어떤 것도 없으므로 하나님 안에는 지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하나님은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 인식은 인간이 ‘지성’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일 뿐, 하나님 자신이 인식이므로 자신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

③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파악하지 못한다. ‘파악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안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무한하신 분이며, 어떤 한계로 한정되어 있으신 분이 아니시다. 고로 하나님께는 하나님 자신을 더 알기 위해 자기 자신을 파악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④하나님은 인식하는 것(인식활동) 자체가 그의 실체(實體)는 아니다. 인식한다는 것은 어떤 작용이다. 작용은 작용자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을 표시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없다.

⑤하나님은 자기와 다른 것을 인식하지 못하신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당신 밖에서 아무것도 보지(투시)않으신다.’고 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다른 것 자체가 없기에 하나님은 자기와 다른 것을 인식하지 못하신다.

⑥하나님은 자기와 다른 것들을 [각 사물에] 고유한 인식으로 인식하지 않으신다. 각 사물은 하나님 안에 있기에 사물의 보편적인 제1원인은 하나님이시다. 고로 하나님 밖에 다른 사물이 존재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각 사물을 고유한 인식으로 인

식할 일 자체가 없다고 하겠다.

⑦하나님의 지식은 추론적이다. 추론하는 자는 원인을 통하여 결과를 인식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자기 자신을 통해 인식하신다. 이것은 원인을 통해 결과를 인식하는 것과 같으므로 하나님의 인식은 추론적이다.

⑧하나님의 지식은 사물들의 원인이 아니다. 원인이 주어지면 결과도 주어진다. 하나님의 지식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식이 피조물의 원인이라면 피조물은 영원부터 있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⑨하나님은 비유(非有)들에 대한 지식을 갖지 않는다. 지식은 아는 자와 알려진 것 사이에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께는 어떤 유사성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알려질 수 없다.

⑩하나님은 악들을 인식하지 않으신다. 인식되는 모든 것은 그것의 유사성이나 그것과 대립되는 것을 통해 인식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인식하실 때 자기 본질을 통해 인식하신다. 하나님의 본질은 악의 유사성도 아니며 악과 대립되는 것도 아니기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을 인식하지 않으신다.

⑪하나님은 개개의 것들을 인식하지 않으신다. 인간의 지성은 비물질적인 것이어서 개개의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인간의 지성은 단절되지 않은 어떤 형상(刑象)을 받아들여 인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성은 인간보다 더 비물질적이다.

⑫하나님은 무한한 것들을 인식할 수 없다. '지식으로 파악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그 파악까지로 한정되며, 그것은 무한이 아니다. 무한은 끝으로 한정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한'을 인식했다면 그 순간 그것은 '유한'이 되고 만다.

⑬하나님의 지식은 미래의 우연적(偶然的)인 것들에 관계되지 않는다. 필연적인 원인에서만 필연적인 결과가 나온다. 하나님의 지식은 필연적인 것이니 그 결과도 필연적이다. 그렇다면 우연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은 없는 것이다.

⑭하나님은 언표적(言表的)인 것들을 인식하지 않으신다. 인간은 지성으로 언표적인 것을 유사를 통해 인식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단순하시기에 언표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유사도 없으므로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신다.

⑮하나님의 지식은 가변적(可變的)이다. '지식'은 '알려질 수 있는 것, 지식의 대상'에 대해 관계적이다. 그런데 피조물과 관계된 것들이 하나님께 대해 말해지는 것은 시간적으로 되는 것이며, 피조물들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식은 피조물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可變的)이 된다.

⑯하나님이 사물들에 대해 사색적, 관조적(觀照的) 지식을 갖지 않는다. 하나님의 지식은 사물들의 원인이다. 그런데 사색적, 관조적 지식은 알려진 사물의 원인이 아니다. 고로 하나님의 지식은 사색적, 관조적이지 않다.

15.이데아에 대하여

- ①이데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데아(idea 변하지 않는 어떤 형식)는 사물들이 인식되도록 하는 어떤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자신 안에서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데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②이데아들은 많지 않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데아는 하나님의 본질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이데아도 하나다.
- ③하나님이 인식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이데아들이 하나님 자신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악의 이데아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악은 하나님께 인식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식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모든 이데아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16.진리(眞理)에 대하여

- ①진리는 지성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물들 안에 존재한다. 어거스틴은 ‘있는 바로 그것이 진(眞)이다.’라고 한다.
- ②진리는 복합하고 분할하는 지성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포함한 모든 사물들 안에 존재한다.
- ③진(眞)과 유(有)는 전환(轉換, 환치換置)되지 않는다. 진은 본래적으로 지성과 사물들 안에 있고, 유는 본래적으로 사물들과 지성 안에 있다. 그러므로 진과 유를 바꿀 수 없다.
- ④선(善)은 개념상으로 진(眞)에 선행(先行)한다. 선은 진보다 더 보편적이다. 그것은 진이 어떤 선, 곧 지성의 선이기 때문이다.
- ⑤하나님은 진리인가? 하나님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지성의 복합과 분할’에 성립된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복합과 분할이 없다. 진리는 ‘근원에 대한 유사’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근원에 대한 유사가 없다. 고로 하나님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를 포함한 훨씬 더 포괄적으로 더 크신 원인이시다.
- ⑥모든 것이 그것에 의해 진(眞)인, 다만 하나의 진리(제1 진리)는 존재한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정신보다 더 큰 것은 없다. 그런데 진리는 인간의 정신보다 더 크다. 따라서 하나님을 ‘제1 가지적(可知的) 진리’라고 한다.
- ⑦창조된 진리는 영원하다. 어떤 것도 원(圓)의 개념이나 $2+3=5$ 라는 것보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런데 이런 진리는 창조된 지리이다.
- ⑧진리는 불변(不變)한 것이다. 진리는 정신과 같은 것이 아니다. 정신과 같은 것이라면 변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진리는 모든 변화 후에도 남는 제1질료이다. 그래서 진리는 불변적이 것이다.

17. 허위(虛僞)에 대하여

- ①허위(거짓)가 사물들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거스틴은 “진(眞)이 있는 것이라면, 허위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사물들은 자기 형상과 다른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허위는 사물들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 ②감각 안에 허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거스틴은 “만일 신체의 모든 감각이 느껴지는 대로 내가 반응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나의 의지는 감각에게 요구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감각들 한테서 속지 않는다. 그러므로 감각 안에는 허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③지성 안에 허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거스틴은 “속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고로 지성 안에는 허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④진(眞)과 위(僞)는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다. 어거스틴은 “진은 있는 그것이다.”라고 했다. 진과 위는 마치 있는 것과 있지 않은 것, 곧 없는 것이 대립하는 것과 같은데, 있지도 않은 것과 어떻게 대립하겠는가.

18.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 ①사는 것은 모든 자연적 사물들에 속하는 것이다. ‘운동은 자연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마치 생명과 같은 것’이다. 모든 자연적 사물은 운동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고로 모든 자연적 사물은 생명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 ②생명은 어떤 한 작용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는 것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 영양을 섭취하는 것, 감각하는 것, 장소를 따라 운동하는 것,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은 어떤 한 작용이다.
- ③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적합하지 않다. 사는 것은 스스로를 움직이는 것이다. 사는 것은 어떤 삶의 원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사는 것은 성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물체적 사물에만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신다.
- ④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은 아니다. 선(善)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지만, 악(惡)들은 하나님이 만들 수는 있지만 결코 만들지 않으실 것이기에 그것들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은 아닌 것이다.

19. 하나님의 의지에 대하여

- ①하나님 안에는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의지의 대상과 목적은 선(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이 없으시다. 의지는 어떤 욕구이다. 욕구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은 갖지 못한 욕구가 없으시다. 의지는 움직여주고 움직여

- 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1동자(第一動者)로서 부동적(不動的)이신 분이시다.
- ②하나님은 자기 이외의 어떤 것들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신성으로 충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원하는 것으로 충족되는 의지가 아니시다.
- ③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든 그것은 다 필연성에서 원하시는 것이다. 모든 영원한 것은 다 필연적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든 다 영원으로부터 원하신다.
- ④하나님의 의지가 모든 사물들의 원인은 아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통해 행동하지 않으신다. 마치 태양이 모두에게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善)도 존재하는 모든 것에 자기의 선성(善性)의 빛을 침투시키신다.
- ⑤하나님의 의지에 어떤 원인이 있는가? 의지적인 행동자에게 작용의 이유(근거)는 원함이 그 원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는 어떤 원인을 갖는다.
- ⑥하나님의 의지가 항상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깨달음에 도달하기를 원하신다.'(딤후2:4)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가 항상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 ⑦하나님의 의지는 가변적(可變的)이다. '나는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창6:6) 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삼상15:11)
- ⑧하나님의 의지는 그 원한 사물들에 필연성을 부과한다. 어거스틴은 "누구도 하나님 구원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구원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도록 청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루어지는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 ⑨하나님은 악(惡)들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생성하는 모든 것은 선하다. 악들이 생성되는 것도 선인 것이다. 어거스틴은 "악인 것들은 그것들이 악인 한 선들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선들 뿐만이 아니라 악들도 존재한다는 것은 선이다."라고 한다.
- ⑩하나님은 자유의사(自由意思)를 갖지 않으신다. 히에로니무스는 "다른 것들은 다 자유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쪽 중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질 수가 있지만, 자유의사가 없기 때문에 죄가 그에게 떨어지지 않고 또 떨어질 수도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고 했다.
- ⑪하나님에 있어서 '표시의 의지'는 구별된다. 지식이 생성되는 원인은 오직 의지에 의해서다. 우리는 아는 것일지라도 원하지 않고서는 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표시는 의지에 귀속되는 것처럼 지식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 ⑫하나님의 의지에 대해 금지, 계명, 조언, 작용, 허용의 다섯 표지가 주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또는 조언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작용시키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들을 그분이 허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리:최용우

여친




남: 거, 예쁜 아가씨 어디서 오셨수?
 여: 예쁜 건 알아가지고 어디서 작업질을
 미안하지만 나는 남자 친구가 있어요.
 남: 그래요? 나도 여친이 있소.

남: 골키퍼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나요?
 첫눈에 반했으니 우리 오늘부터 친구 합시다.
 여: 싫은데. 그래도 내 남친이 더 좋은데요.
 남: 그래요? 그 남친 참 행복하겠수다.

최용우 제이시집<일출봉에 햇별이 짹하오>

시작노트


비학산 일출봉에서 새로 사귄 여자친구와 함께^^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냥 마누라랑 장난친 거예요)



비학산 일출봉 시인의
산중 연가(山中戀歌)

일출봉에
햇별이
짹하오

최용우 지음
210쪽(울컬리) 136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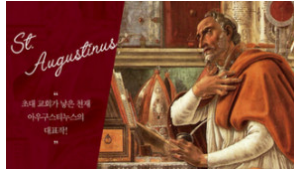


꽃같은 그대 있어
이 세상이 꽃 같습시다

♥ 아내에게
바치는 시

최용우 지음
216쪽(울컬리) 15000원

두 나라의 참된 기원-천사들의 순종과 반항



303. 하나님의 섭리가 가져오는 세계사의 아름다움

하나님은 인간이 앞으로 악하게 될 것을 아셨고 악한 인간을 어떻게 쓰면 이로울지도 아셨다. 세기의 질서를 훌륭한 대조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시처럼 꾸밀 방법을 모르셨다면 하나님은 사람은 물론이고 천사도 만드시지 않았으리라.

304. 빛과 어둠의 분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빛을 처음 만드셨으며 천사들도 만드셨다.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창1:4-5) 한쪽은 천사들의 거룩한 공동체인 빛이며 그들은 진리의 조명을 받아 이성적으로 반짝이지만 다른 쪽은 대립된 어둠으로 정의의 빛에게 등 돌린 나쁜 천사들의 더러운 생각이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나누셨지만 그것은 본성이 아니라 의지 때문에 앞으로 생길 악덕이었으며, 하나님에게 숨길 수 있거나 불확실한 것이 아니었다.

305. 하나님이 피조물을 좋다고 여긴 일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는 말씀에 이어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창1:3-4)는 말씀이 더해졌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 뒤에 하신 말씀이 아니다. 만일 그랬다 하나님이 빛을 좋게 보심과 마찬가지로 어둠도 좋게 보셨다는 말씀이 되기 때문이다.

306. 창조 속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지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창1:4,10,12,18,21,25,31)는 말씀은 모든 피조물에게 하셨다. 하나님은 창조를 끝마친 뒤 만들어진 것을 보고서 좋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끝마친 뒤 만들어진 것을 보고서 좋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이 아니다. 피조물 가운데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서 미리 알지 못했던 것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몸과 마음의 복합체가 아니시기에 지난날과 오늘과 다가올 미래가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로 겹쳐져 똑같으시다. -(계속)

찬송...(1)



1.서로 화답하는 찬양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찰떡같이 믿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眞如)인지, 아니면 사람이 만든 전통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어느 교회를 들어가 보아도 예배는 항상 찬송이나 합창이나 복음성가로 시작하고 또 찬양대(성가대)의 연주나 찬양을 부르면서 스르륵 시나브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나 1세기 초기 교회에서도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나는 ‘찬양 샌드위치 예배’를 드렸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엡5:19)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서로 화답’입니다. 초기교회에서는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어서 ‘서로 화답’하는 능동적인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의 찬양은 찬양을 부르는 회중에게는 전혀 결정권이 없고 찬양 스테프가 인도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따라 부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골3:16)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찬양이 예배의 전부인 것처럼 예배 시간의 대부분을 찬양으로 채우거나, 반대로 ‘설교’를 듣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 정도로 축소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찬양을 초대, 초기교회에서는 어떻게 드렸고, 성

경은 어떻게 찬양을 하라고 했는지, 또 '찬양대(성가대)'는 언제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또한 '음란 찬양'이 어떻게 '신령한 노래'로 둔갑하여 성도들의 심령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868)

2.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엡5:19)라고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무엇일까요?

1. 시(詩 Psalm 프살모스) - 구약 시편 성경을 가리킵니다. (눅20:42, 행1:20) 유대인들은 시편을 수금에 맞추어 노래로 불렀습니다. (고전14:26) 원래 시편 성경이 그런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한글 성경은 시편을 ‘문장’으로 번역했는데, 원본은 마치 악보가 없고 가사만 있는 찬송가처럼 ‘라임(Rhyme)’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문에서 각 행의 중간 또는 끝에 특정 음소(phoneme)를 반복하는 방법을 운율, 또는 라임이라고 합니다. 신약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이어받아 예배로 모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지어 악기를 연주하며 라임으로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는 ‘성서교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사회자와 회중이 한절씩 읽는 이상한(?) 방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2. 찬송(hymn) - ‘시(프살모스)’는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찬송’은 이방 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방 종교에서 신이나 신화적인 인물들을 칭송하는 노래를 ‘힉노스’(찬송)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3. 신령한 노래(오다이스 프누마티카이스)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찬송을 ‘신령한 노래’ 또는 ‘송시(頌詩)’ 또는 ‘영가’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송영’이라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영광송’, 정교회에서는 ‘영송’, 성공회에서는 ‘송가’, ‘삼위영가’, ‘영창’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문화와 교파와 예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부르지만 그 의미는 같습니다. (7869)

3. 사울과 다윗의 찬양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엡5:19)라고 합니다. 어떻게 ‘시(詩 Psalm)’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다음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는 선지자들을 만났습니다. (삼상10장) 사울은 그 노래에 빠졌고 그 노래를 듣고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노래하는 선지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그들을 오케스트라 찬양대로 조직하고 그들이 부를 예언적 시편 찬양을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노래 자체에 빠졌을 뿐, 시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쓰고 레위인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조직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시편 찬양'은 제단과 언약궐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연주되었던 영광스런 음악의 후광(後光, halo)입니다. 50년 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음악 하는 사람들이 시편 찬양을 부르려고 성전 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성전에 등극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찬양 위에 등극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시편 찬양'은 인간들끼리 화답하는 방식으로 읽도록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연주용 음악과 짝이 맞도록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심벌즈, 나팔, 수금, 기타 같은 악기의 연주에 맞추어 불리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오늘날 '성서교독'은 전혀 시편 찬양과 맞지 않게 변형된 것입니다. (7870)

4. 시편 찬양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엡5:19)라고 합니다. 시(詩 Psalm)편은 성령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어둠을 몰아내실 때 시편을 사용하십니다. 악령이 사울을 괴롭혔을 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며 시편을 부르자 악령은 쫓겨났습니다.(삼상16:14-23) 오늘날 우리는 시편 찬양에 악한 영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찬양을 부르지만 놀랍게도 찬양을 하는 그 가운데에도 어둠의 영이 가득합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신 이후부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며 하늘에 있는 성부의 보좌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소망을 받았고, 이 소망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히7:19)

하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천사들이 악기와 더불어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큰 무리는 선창(先唱)과 후창(後唱)으로 노래하고, 하늘로 초청되어 그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보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데, 그것은 '시편 찬송'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초대 초기교회는 이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악기 없이 노래만 불렀던 유대교 회당

과 달리 초대 교회는 여러 악기를 동원하여 시편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렘20:13) (7871)

5. 잃어버린 시편찬양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 하며 찬송하”(엡5:19)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詩 Psalm)편 찬양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公認)한 이후 로마의 이방 종교 제의가 기독교 예배 형식을 점점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5세기 즈음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기독교는 영지주의에서 나온 이상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기괴한 사제들에 의해 기독교 예식이 기괴하게 바뀌어갔습니다. 점차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 내리고 성자(聖者 saint)라 불리는 거룩한 사람들의 유물과 성상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라며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성상들과 성모 마리아와 다양한 성인들이 회중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은 개인적으로 자신들을 지켜주는 성인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와 더 가까이 계신다는 새 언약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당 내부 구조도 이런 사상을 반영하여 회중과 사제가 할 수 있는 한 멀리 떨어져 하게 했고 회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회중들이 사제와 앞뒤로 교창(交唱)하던 순서도 찬양대가 다 떠맡게 되었고 성경도 사제들만 보는 책으로 봉인되었고 성찬도 사제들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구 교회는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1천년 이상 이단적인 예전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개혁자들이 성경을 바로 깨닫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개혁자들은 예배와 성경은 회중의 언어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장 먼저 성경을 대량으로 인쇄해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성찬도 회중이 참여하는 것으로 개혁하였습니다. (7872)

6. 칼빈과 시편 찬양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 하며 찬송하”(엡5:19)라고 합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 중세 교회는 시(詩 Psalm)편 찬송을 잃어버렸습니다. 존 칼빈은 개혁자 마틴 부버의 저서를 읽고 시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칼빈은 1537년 글에 “시편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고양(高揚)하고 자극하는 힘이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열정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강요>초판 이후에 “만약 우리의 마

음이 둔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시편을 크게 부르도록 만들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제네바교회 목회자가 된 후에 처음으로 프랑스로서 된 시편 찬송 19편과 십계명과 시므온의 노래 그리고 니케아 신경에 곡을 붙여 <제네바 시편 찬송>을 출판했습니다. 칼빈은 “교회가 시편 150편 전부 그리고 성경의 다른 노래들을 익숙하게 부르도록 배울 때까지는 다른 찬송을 만드는 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시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작곡한 찬송은 대개 성경적으로 불충분하고 종종 이단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칼빈은 “먼저 모든 시편을 배우라. 그 후에 우리는 찬송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음악은 교회 고유의 스타일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음악 기법이 무분별하게 들어와 혼란스러운 오늘날 교회 음악도 찬송의 성경적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7873)

7. 제네바 시편 찬송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 하며 찬송하”(엡5:19)라고 합니다. 칼빈이 중세 교회가 잃어버린 시(詩 Psalm)편 찬송을 찾아 복원한 <제네바 시편 찬송>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네바 시편 찬송>은 각 시편마다 구별되는 곡조와 운율이 있기 때문에 그 독특한 느낌을 잘 살려서 편집을 했습니다. 시편 찬송 125가지가 다른 선율과 운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음악적으로 볼 때 놀라운 일입니다. 칼빈은 교회 전통을 충실히 반영하여 악기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이 한목소리를 내어 시편을 불렀다.’(대하5:13)는 말씀대로 전 회중이 같은 곡조로 불려야 했습니다.

<제네바 시편 찬송>은 중세 찬송의 리듬있는 평범한 노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음이 단조롭고 조용하며 상대적으로 느린 그레고리 성가와 비슷했습니다. 칼빈과 그의 동역자들은 시편 찬송이 리듬 있게 열정적으로 불려지기를 바랐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록 몇몇 <제네바 시편 찬송>이 새로웠으나 대부분은 그레고리 성가를 편곡한 것이었습니다.

<제네바 시편 찬송>을 프랑스 개혁교회가 사용했고, 헝가리 개혁교회, 화란 개혁교회, 캐나다 개혁교회를 거치면서 점점 다른 찬송들이 더해져 원래의 모습을 잃어가면서 새로운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네바 시편 찬송>의 전통을 이어받아 성경 옆에 ‘찬송가’가 붙어 있게 되었지만, 찬송가의 구성은 완전히 다른 ‘찬송가’입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제네바 시편 찬송>의 곡은 한 곡도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7874) ©최용우



대문 밖 콩밭 (사진:최용우)

콩밭

좋은 분이 우리 집에 왔다 가셨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가끔 내 글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아는 그분은 자기의 이야기는 쓰되 이름은 쓰지 말아 달라고 하셨다. 그분은 우리 집 주변을 둘러보더니 마당과 밭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농사를 짓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했다. 음... 별레와의 전쟁이에요. “와~! 이 방울토마토가 <들꽃편지> 표지에 나온 그 토마토군요.”

“전도사님은 왜 그렇게 시를 잘 쓰세요? 시가 너무 쉽고 이해가 잘 되고 공감됩니다. 전도사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마시고 시를 더 많이 쓰셔야 합니다.” 음... 저는 가만 있으면 시가 안 써져요.ㅠㅠ

그분이 돌아가고 난 후 새삼스럽게 내가 사는 주변을 한번 쓱 돌아보았다. 음... 역시 별것 없어.

지금은 밭에 고추와 콩이 잘 자라고 있는 중이다.

분꽃 이야기

동네 주차장 의자에 앉아서 아내를 기다릴 때, 눈에 들어온 분꽃의 색깔이 이뻐 사진을 찍었다. 분꽃은 '멘델스의 유전법칙'을 설명할 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꽃이다. 분꽃은 특이하게 오후 4에 꽃이 핀다.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는 '네시꽃(FOUR-clock)'이라 한다.



분꽃은 분홍색, 자주색, 크림색, 보라색, 노란색이 있고 두세가지색이 꽃 한송이에 나타나기도 한다. 부모에게서 나올 수 있는 자식의 혈액형을 비유할 때 분꽃의 예를 든다.

꽃잎은 식용색소를 만드는 원료로 쓴다. 마치 미니 수류탄 같이 생긴 열매를 어렸을 적에는 '염소 똥'이라 했던 기억이 난다. 그 까만 염소똥을 쪼개면 하얀 분(紛)이 들어있어 '분꽃'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화장품이 없던 시절에 여자들은 그 분을 얼굴에 발라 이쁘게 화장을 했었다.

고추 말리기

고추 따는 계절이 되었다. 고추를 한문으로 '괴로울 고(苦) 나무 초(椒)를 써서 '고초'라고 한다. 고추로 만든 장을 '고추장'이라 하며 한국인들은 '김치'를 담그는데 '마늘'과 '고추'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재료이다.



고추가 매운맛을 내는 이유는 고추를 먹는 포유류에게 고통을 줘서 먹지 못하게 하고 매운맛을 느끼지 못하는 조류(새)가 고추를 먹고 그 씨를 번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한다.

하지만 아프리카가 고향인 고추가 한국인들 눈에 띈 것은 큰 실수였다. 한국인들은 고추를 지지고, 볶고, 빵고, 튀기는 것도 모자라 씨로 기름을 짜고 잎까지 모조리 먹어 치운다. 그러고도 모자라 생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서 씹씩 베어 먹는다.

고추가 한국인들 때문에 괴(苦)롭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

독고다이

일본 야쿠자(조직폭력배)들 사이에서 혼자 다니는 싸움꾼을 ‘독고다이’라고 한다. 일본군 카미카제 자폭부대를 ‘독고다이’라고 했다. 현실적으로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독고다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코 좋은 말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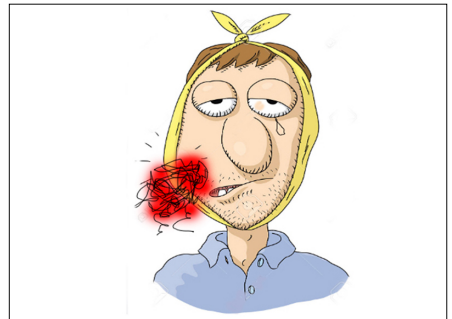


유튜브에서 순복음 교단의 아무개 ‘긍정주의자’ 목사님 설교를 얼핏 듣는데, 자기는 한번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독고다이’라고 한다. 아이고... ‘그 교회 성도님들 많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왜 그런 영상을 나에게 보여주는지... 암튼지 맘에 안들어...

농협주유소 다리 밑에도 다른 고양이들 눈을 다 파버리고 혼자 독고다리로 살아가는 깡패 고양이가 있다. 밥을 챙겨주던 아가씨도 언젠가부터 밥 주는 것을 멈춘 것 같다.

치통

서구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깜짝 놀라거나 힘들 때 ‘Oh, my God!’하고 신을 찾는다. 동양권에서는 “엄마야~!” 중국 사람들은 ‘워터마야!’ 일본 ‘에에에에?’



어젯밤 나는 “엄마, 아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찾았다. 암튼 누구든 이 고통스러운 ‘치통’을 빨리 멈추게 해주는

존재를 앞으로 100년 동안 사부님으로 모시겠다고 다짐했을 정도로 이를 앙물고 참다가... 결국 ‘게보린’이 나의 사부님이 되었다. 卍卍

‘치통은 장군도 못 견뎀다.’는 말이 있다. 갑자기 내 입속마을 윗동네 왼쪽 끝집에 불이 났다. 아프고, 시리고, 아리고, 육신육신하고, 우리우리하고, 간질간질하고... 아내는 평소에 양치질을 안 해서 그렇다는 진찰만 하고... 이번주 금요일 예약한 치과에 가는 순간까지 어찌하든지 잘 버텨야 한다.

일상의 기적

나의 84번째 책이 나왔다. ‘최용우 열두번째 시집’이고 일상 시리즈 ①일상의 행복 ②일상의 기쁨, 에 이어 ③번째 <일상의 기적>이다. 일상 시리즈로 앞으로 계속 만들 계획인데, 2권 분량은 이미 다 써 놓았다. 다른 책들이 줄줄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어서 아마도 ④번째 시집은 내년이나 나오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시집’출판이 굉장히 활발한 편이라고 한다. 과연 풍류의 민족답다. 그런데 서점에서 많이 팔리는 시집은 ‘쉽게 읽히는 쉬운 시집’이다. 시인이 아닌 이상 사람들은 쉽게 읽을 수 있는 시집을 찾는다. 그렇잖아도 힘들고 골치 아픈 세상에서 ‘암호 같은’ 시를 읽으며 이해해 보려고 머리를 굴리기 싫다는 뜻이 아닐까? 나의 <일상 시리즈>는 아예 작정하고 ‘쉽게’ 쓴 시다. (사실은 나는 어려운 시를 쓸 실력이 없다.) 이 시집은 아무 고민 없이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다. ‘그저 단순하게 읽고 잊어버리면 된다’고 머리말에도 써 놓았다.



치약

지난주에 치과에서 2층 어금니 한 개를 날렸는데, 그래도 치통이 계속된다. 옆의 이도 아래에서 받쳐주는 이가 없으니 흘러내리면서 똑같이 속이 상했나 보다. 허구헌날 인터넷 박사에게 ‘아이구 나 죽겠네~~~’하면서 빨리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검색만 하고 있다.

깡통에 들어있는 알약 <고체치약>은 구취를 99% 없애준다고 해서 구입. <파로돈탁스>와 <잇치>는 잇몸을 올려주는 유명한 치약이라서 쓰는 치약. 병원에서 준 ‘가글’로 가글을 했더니 갑자기 이가 노루끼리 해서서 깜짝 놀라 원인을 알아보니 이가 탈색되어 그렇다고 해서 가글을 끊고 백설공주처럼 하얗게 해준다는 <치석케어>구입. <펩소텐트>는 아내가 핀란드 여행가서 사 온 자일리톨 치약. 약국에 가서 상담을 했더니 약사가 추천해준 <시린이> 구입... 맵소사... 화장실이 치약 전시관이 되어가고 있다. 어쨌든 치약도 ‘약’이니 뭐라도 하나만 효과가 있어...



인연이란

인연이란 참으로 질기고 질긴 것 아닌 개 최운경과 양순례는 이 땅에서 내가 알기론 10여년 부부로 살았을 뿐이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묶인 인연이 60년을 넘어 앞으로도 저 돌에 새겨진 흔적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올해도 처서 지나 찬바람이 불어올 때, 부모님 별초를 하러 산에 올랐다. 망할놈의 맷돼지들이 여전히 무덤을 망가뜨려 놓았지만, 그것이 맷돼지들의 할일인 것을... 하고 말았다.

돌아가신지 50년이 지나서 이미 흙으로 변해버렸을 아버지와, 엇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이 지난 어머니는 화장을 하여 더 빨리 흙이 되었을 것이다. 이모님도 관리하는 무덤들을 평평하게 하여 자연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한다. 우리도 이제 서서히 부모님을 자연으로 영원히 돌려드릴 준비를 해야겠다.



준 생일

8월 28일은 나의 자랑이고 아내의 기쁨인 딸 1호 좋은이의 생일이다. 그래서 미리 주말에 동생과 함께 내려와 온 가족이 모여 가족식사를 하기로 했다. 어디로 갈까 머리를 쥐어뜯으며 1주일 동안 고민을 하다가 오랜만에 '꽃마름' 식당에 가기로 했다.

시간에 딱 맞추어 내려온 딸들을 고터에 내리자마자 차에 주워 태우고 반석에 있는 식당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모두 넉넉하고 만족스런 식사를 하고 집에 왔다.

어제 처가에 갔을 때 장모님이 손녀 생일이라고 사주신 6가지 맛의 케익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꺼내왔는데, 동생이 또 동네카페이 이미 케익을 주문해 놓아서 갑자기 두 개가 되었다. 케익 두 개면 생일축하 노래도 두 번 불러야 하나?

뷔페식당에서 배 터지게 밥 먹고 와서 또 케익을 씹씹거리며 먹었다. 우리 식구들 배는 무한정 늘어나는 고무풍선인가봐. 들어가네... (제발 아빠 닳아서 그렇다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소심한 아빠 마음에 상처받아요.) 어쨌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다. 좋은아! 생일 축하해 하트뽕뽕뽕♥♥♥.... ©최용우



□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마5:1)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제666회 비학산300 (일출봉252m) 2024.8.9

▲제667회 망경산(385m 세종)

어떤 분 산행기에 '망경사'에서 올라가면 정상이 금방이라기에 네비게이션에 망경사를 찍고 갔는데, 길도 없는 망경사 뒷산에서 해마다 그냥 내려와 다시 검색해 보니 '고삿재' 고개가 들머리였다.

고삿재로 달려가 국가유공자묘역 주차장에 차를 댔다. 잘 만들어진 등산길이 있었다. 급경사에 계단이 제법 많은 산길이라 등산 후에 다리가 뻘근했다. (2024.8.17.)



▲제668회 축령산(622m장성)

작년 이맘때 아우 최용남과 함께 등산을 처음 시작하여 지난 1년 동안 함께 10산을 올랐다. 1년 만에 축령산 어게인 산행을 했다. 올해 들어 가장 땀을 많이 흘린 산행이었다. 후덥지근한 날씨가 은근히 땀을 비오듯이 흐르게 하였다. 인터넷에서 구입한 쿨밴드가 그나마 머리에서부터 흐르는 땀을 중간에 막아 주었다.



올해는 유난히 깔따구들이 기승을 부린다. 수컷 깔따구가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특정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사람의 머리 높이가 그 위치라 머리 주변으로 모이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니, 지들 짝짓기를 하는데 왜 사람 머리를 호텔(?)로 사용하냐고... (2024.8.23.)

▲제669회 현충원 보훈둘레길 2023.8.30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씨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 밤과낮이 똑같은날 천고마비 가을이네

추분과 춘분은 밤과 낮이 같아지는 날입니다. 노을 질 무렵 땅거미가 내리면 문득 낮이 짧아진 것을 확연히 느낍니다. 대추나무 아래 돛자리를 펴고 대추를 털니다. 떡갈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떨어진 도토리리를 주워 말려 가루내어 묵을 만듭니다. 들로 산으로 다니는 곳마다 들국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납니다. 옛날에는 달이 차오르는 밤에는 저마다 모여 동네 어귀로 달맞이를 나갔었지요. 그때는 밤이면 불빛이 없어 온 세상이 캄캄했고 달빛이 은은히 비추었으나 지금은 도시나 농촌에도 전기 불이 휘황찬란하여 그런 고즈넉한 풍경을 보기 힘들죠.



② 표지사진 이야기

‘활을 쏘는 헤라클레스’는 프랑스의 조각가 브르델의 작품으로 스팀파로스호의 괴물새를 겨냥하여 활시위를 잡아당기는 헤라클레스의 박진감 넘치는 표정을 긴장감 있게 표현한 유명한 작품이다. 영광 불갑산 장군봉 가는 길에서 헤라클레스처럼 하늘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겨 보았다. 무릇꽃이 활짝 핀 불갑사의 산은 온통 붉은 피로 물든 것 같았다. 단풍의 붉은 빛은 불이 난 것 같은데, 무릇꽃의 붉은 빛은 처절하고 안타까운 핏빛이다. (모델:최용남)

③ 도서출판 소식

〈신간〉 마가-예수어록 (어록시리즈2) /324쪽 15000원 -2024.8.29.출간
84.일상의 기적 (시12) /컬러210쪽 15000원-2024.7.30. 출간
83.오두막 일기 (일기15) /컬러396쪽 24000원-2024.6.28 출간
82.성동-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햇별23) /318쪽 14000원-2024.5.30 출간
81.마태-예수어록 (어록시리즈1) /692쪽 28000원-2024.3.19. 출간!
80.아내에게 바치는 시(시11) ‘컬러216쪽 15000원-2023.12.26. 출간!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79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4.8월 재정결산

2024년 8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김광현 김상식 김준경 박근식 박승현 박신혜 양희창 오창근 옥치오 이상호 이인숙
이재익 이진우 임대근 장기갑 정호숙 지경희 최상복 한주환 들꽃교회 새벽기도
선한열매교회 안디옥교회 함안중앙교회

총 24분이 1,00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버 이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사역 -인터넷신문 햇별같은이야기 2024.9.21일까지 7908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후보자료파일, 전도자료 발행

③출판사역 -그동안 85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사역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독거인, 문서2, 인터넷, 북방선교2, 선교사, 난민)

⑥피정사역(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몇 년 동안 작은 흙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로 피정 사역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기독교 목회사역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피정사역을 위한 특별 후원헌금 계좌 /우체국 100347-02-096053(이인숙))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드린
햇볕같은이야기 시리즈 (13권)
 각권 320쪽 내외 가격12000~15000



〈햇볕같은이야기〉는 1995.8.12일 pc통신 하이텔 플라자 큰마을 게시판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담은 원고지 4-5매 정도의 짧은 칼럼을 처음 올리면서 시작하여 1만 편의 글을 쓰는 것을 목표로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칼럼을 모은 책이 여러 출판사에서 나오다가 2016년부터 모든 글을 새롭게 재편집하여 교보문고 <퍼플>출판사를 통해 단행본 시리즈로 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최용우 저서



따뜻한 밥상-점심밥1

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 -하루 한쪽 1본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단 순히 읽기만 해도 영혼에 양식이 되는 순수 말씀 중심 묵상집입니다. 시편 전체를 1년 동안 묵상합니다. 14,100원 400쪽 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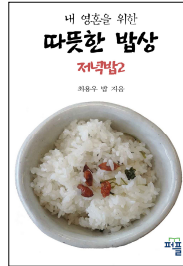
따뜻한 밥상-점심밥2

묵상은 갈대기와 같아서 단순히 그냥 흘려 보내기만 해도 머리의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 갑니다. 변화는 머리로 되지 않고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1년 동안 묵상합니다. 14,100원 398쪽 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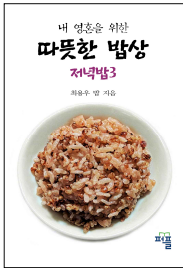
따뜻한 밥상-저녁밥1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 따라 신학적 교리적 조미료 치지 아니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읽은 쉬운 말씀묵상 마태복음-마가복음을 1년 동안 묵상합니다. 14,100원 400쪽 퍼플



따뜻한 밥상-저녁밥2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어로 묵상하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았습니다. 누가복음-요한복음을 묵상합니다. 17,300원 398쪽 퍼플



따뜻한 밥상-저녁밥3

밥은 스스로 떠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말씀의 밥을 자신의 말로 만들어서 자신의 고백으로 '아멘'을 할 수 있게 묵상하였습니다. 사도행전-요한계시록을 1년 동안 묵상합니다. 17,000원 398쪽 퍼플



겨울 묵상

일상 사진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리얼리티(reality) 13년 동안 일상의 모습을 찍어서 '기독교비평화면'을 만들었던 사진 중에서 겨울 사진 200장을 골라 묵상글 글과 함께 편집하였습니다. 13,900원 218쪽(컬러)퍼플

❀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슈터(피징) <http://cyw.co.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속티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68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